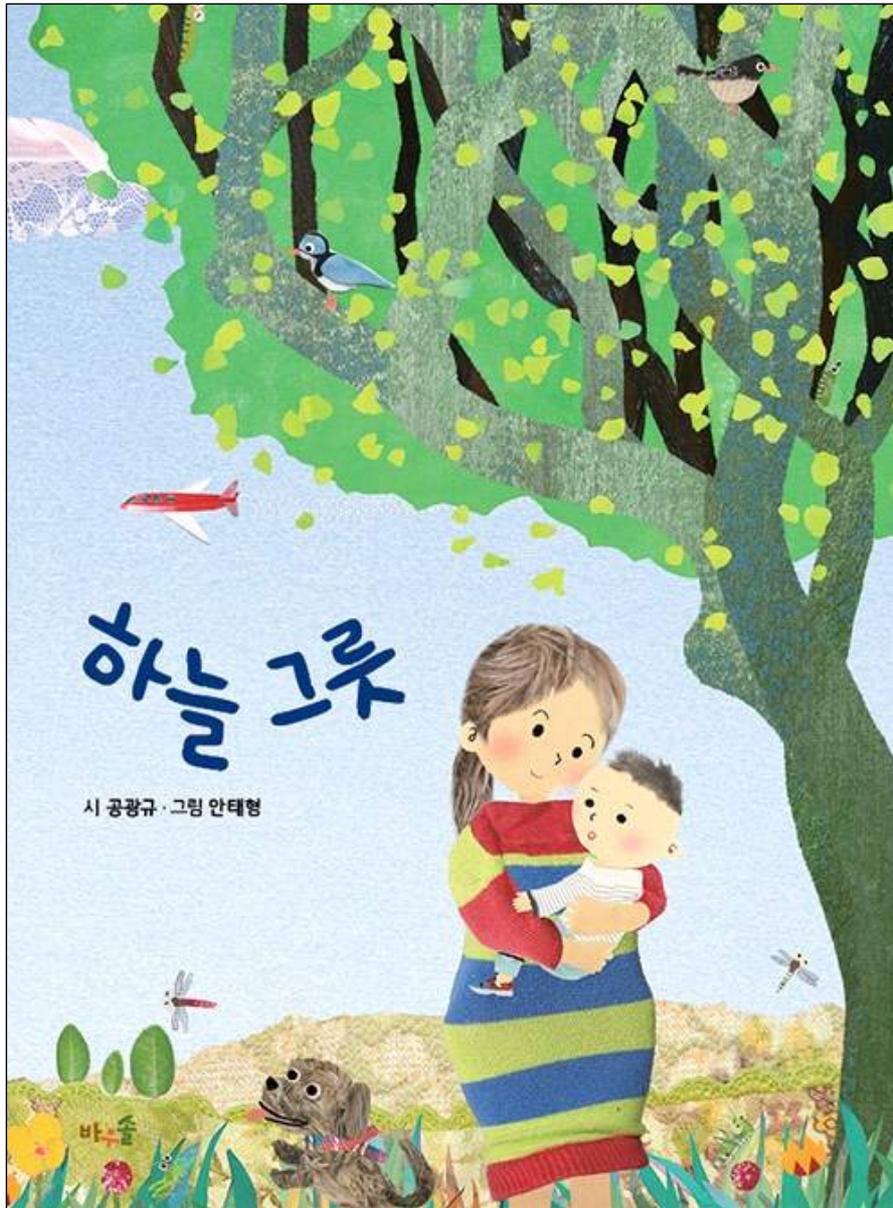


《하늘 그릇》 독서지도안



하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시시각각, 매 순간 달라지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늘 이야기!

- 작가_ 공광규 시 · 안태형 그림
- 출판사_ 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지평선 위로 보이는 넓디넓은 공간, 하늘. 자연에서 하늘만큼 다양하고 극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동트는 새벽녘에서부터 아침나절, 한낮, 해 질 녘, 밤에 이르기까지. 하늘은 시시각각,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우리 머리 위를 수놓습니다.

《하늘 그릇》은 해와 달, 별과 은하수 등 다양한 자연과 물체를 담았다가 비워 내는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시 그림책입니다. 자연에서 시적 감흥을 포착해 시로 절묘하게 표현해 내는 공광규 시인은 일각일각 변하는 하늘을 커다란 그릇으로 비유해 독자들을 매혹적인 하늘의 세계로 이끕니다. 여기에 콜라주 기법으로 입체적 상상력을 더한 독특한 삽화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큰 그릇과 같은 하늘. 하늘은 해와 달, 별과 은하수, 구름을 담습니다. 비를 담았다가 쏟아내고, 바람과 눈을 담았다가 비우지요. 하늘은 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하늘은 얼마나 크기에 우주 만물을 담아내는 걸까요?

파란 하늘은 그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늘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주한 하늘은 우리가 늘 흘려보내는 하늘이 아니죠. 조금만 시각을 바꾸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일상은 새롭습니다.

이 책은 무심코 스쳐 보내는 일상 속 하늘을 새로이 보여 줍니다. 변화무쌍한 하늘은 보는 시선에 따라 또 달라지죠. 책을 읽고 나서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 일상에 자리한 아름다운 하늘을, 반짝이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교과 과정 연계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 1학년 2학기 국어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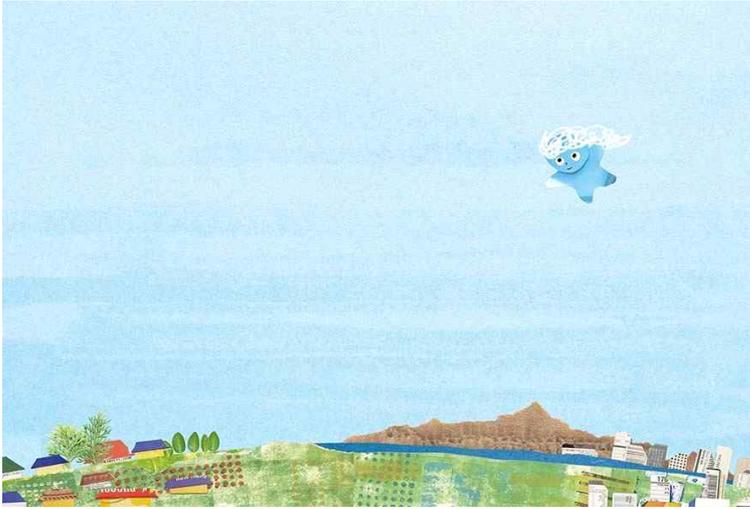
• 지도 요점 :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곁에 있지만, 관심을 두기 전에는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없지요. 이 책은 우리 삶을 언제나 든든히 지탱하고 있는 하늘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이 눈뜨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늘은 어떤 모습인가요? 친구들과 함께 오늘 바라본 하늘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하늘은 해와 달, 별과 은하수, 구름 등을 담아요. 무엇과 같기 때문인가요?



- ① 컵
- ② 가방
- ③ 큰 그릇
- ④ 신발



(2) 하늘은 무엇을 담았다가 쏟아 내어 땅 위에 나무들에게 물을 주나요?



- ① 별
- ② 은하수
- ③ 달
- ④ 비



(3) 하늘은 무엇을 담았다가 바다에 부어 바다를 붉게 만드나요?



- ① 노란 바나나
- ② 초록 나뭇잎
- ③ 빨간 노을
- ④ 보라 가지



(4) 하늘이 밤에 깜깜한 먹물을 가득 담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잠이 없는 할아버지 붓글씨 쓰시라고
- ② 맛있는 먹물 요리를 하라고
- ③ 나쁜 일 모두 가리라고
- ④ 모두 폭 자라고



4. 확장활동

(1) 하늘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순간마다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비와 바람과 눈 등 날씨에 따라 한시도 멈춰 있지 않고 변화하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2) 조각조각 절묘한 콜라주로 완성된 《하늘 그릇》은 겹겹이 붙인 듯한 입체감이 살아나 더욱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나뭇잎과 주위에 있는 물건으로 어떤 하늘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3)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비행기를 담으니 비행기 따라 하얗고 긴 비행운도 함께 하늘 그릇에 담깁니다. 하늘은 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③ 큰 그릇 | (2) ④ 비 | (3) ③ 빨간 노을 | (4) ① 잠이 없는 할아버지 붓글씨 쓰시라고

확장활동

(1)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붉은 노을이 물든 하늘은 정말 아름다워요. 등

(2) 파란색, 빨간색 아름다운 색감이 살아나는 하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내 마음속 하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등

(3) 하늘은 여행 떠나는 즐거운 마음까지 담을 수 있어요.

하늘은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로켓도 담을 수 있어요. 등